환경 과 反차별

NO. 3.

목 차

1. 리오+10.세계화

• 세계화가 리우정신을 허물어뜨렸다 !!

• 침몰하고 있는 지구 서미트

• 바리에서 결정한 건 "행동하지 않는 계획"

2. 비전.평화(非戰.平和)

• 보복(Blow-backs), 21세기의 키워드

• 보복전쟁은 100배의 테러리즘이다 !!

• 모든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연대

• 이매진(Imagine)

• 전쟁이냐, 평화냐

• 무력으로 싸울 용기가 있거든, 말로 싸우는 큰 용기를 가져라 !!

• 핵과 비폭력

• 우리도 군대를 만들자 !!

세계화가 리우정신을 허물어뜨렸다 !![1)]

마틴 코르(제 3세계 네트워크 대표)

1992년의 리우서미트는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환경파괴를 국제문제의 최우선과제로 하고 환경과 개발의 관계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치했다. '리우정신'에 기초해서 새로운 파트너쉽이 나타났으며 환경과 개발 쌍방의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기대가 전세계에 퍼져나갔다.

휴지가 된 약속

리우 합의의 핵심은 '공동이지만 차이가 나는 책임'에 있었다. 거기서는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는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공평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북'은 지구환경파괴에 대해 보다 큰 책임을 지고 오늘의 불평등한 세계 경제하에서는 '북'에 부가 편재한다는 것,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리우서미트 후의 과정은 실패로 끝났다. '리우정신'은 힘을 잃었고 갈기갈기 찢겨졌다. 요하네스버그서미트(리우 +10)를 위한 교섭에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각 국 정부와 국제연합, 시민사회 등 리우 이후의 과정을 추적한 사람들은 '아젠다 21'은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우 서미트에서'북'은 새로운 추가자금을 약속했지만 원조액은 급격히 감소됐다. OECD국가의 원조액은 690억달러(92년)에서 530억달러(2000년)로 줄었다.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원조의 감소는 '북'의 각 국 정부는 리우합의를 실행할 결의와 성실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리우서미트의 정통성을 빼앗아가 버렸다. 기술, 이를테면 환경보전기술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이전이 없었다. 그것과 반대로, 지적소유권보유자(태반이 '북'의 기업)의 권리가 주장되고 기술이전과 보급에 관한 사람들(및 도상국)의 권리는 약화되었다. WTO가맹국에게 무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협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국내에서의 지적소유권확립을 요구한 결과 기술이전이나 자발적 기술발전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지적소유권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리우서미트 후의 과정에서 가져야 할 정통성을 부

1) 일본 대표적 NGO인, PARC(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의 잡지 『オルタ(Alternative)』. 이 글은 2002년 7월호 특집인 「리오+10」 내용 중에서 번역

당하게 빼앗아버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북’의 공약에서 기술이전은, 원조에 버금가는 제 2의 정치과제였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의 충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은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 패러다임을 실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 ‘북’공업국과 기업이 추진하는 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은 세계를 석권했다. 리우서미트의 목적이 실천되지 않은 최대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수많은 협정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계화의 본부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WTO에는 제재 등 강제력을 갖는 분쟁해결제도가 갖춰졌다. WTO협정은 ‘아젠다 21’과 리우선언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유전자 조작기술 등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신기술의 파급이라는 형태에서도 나타났다. 리우서미트는 국제관계에서도 하나의 패러다임이 돼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것은 합의방식과 전세계 국가(소국, 대국 불문)의 필요(Needs)를 채택하는 일, 강자가 약자를 돕는 파트너쉽, 환경과 개발에 대한 관심을 통합하는 일, 공공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국제사회가 시장을 제어하고,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고, 생산과 소비에서 지속 가능한 패턴을 개발하는 일이다. 자유화,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으로의 접근은 그 반대에 있는 패러다임이다. 그것은 시장에 관한 국가의 통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대기업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한다. 국가의 개입은 비록 사회적 서비스에서도 최소일 것을 지향한다. 환경에 관해서도 공적개입이나 환경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없애 성장이 늘어나 더 많은 자금을 환경보호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가 된다. 또,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나 시장에 의한 마이너스의 측면(빈곤과 기본적 필요의 방치)을 경시한다. 이렇게 시장패러다임이 압승한 배경에는 대국의 지원이 있었다. 대국의 재무부는 환경부나 외교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보다 국가이익이나 기업이익이 우선시된다. ‘북’ 각국은 사회경제분야에서 국제연합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다. 반대로 국제적인 경제사회정책결정에서 브레튼우즈체제와 WTO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남’의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1국 1표로 구성되는 유엔이 아니라 ‘북’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브레튼우즈, WTO체제로 권력이 옮겨간 것이다.

기업규제

리우서미트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은 또 하나의 원인은, 대기업의 행동에 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프레임웍(Framework)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2년 리우서미트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이 전혀 제안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이다. 대기업은 공해와 세계의 자원수탈에 커다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지속 불가능한 소비의 패턴과 소비문화의 형성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그 힘과 영향은 규제되지 않았고 WTO에 의해 더욱 강해졌다. 광고의 세계화와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판매전략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는 관련없는 생활스타일과 소비패턴이 확대되었다. 리우서미트 후에 다국적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행동지침은 1993년 정식으로 폐안되었고, 유엔다국기업센터도 문을 닫았다. 오랜 동안의 작업과 교섭은 무로 돌아갔다. 유엔개발무역회의(UNCTAD)에 의한 기술이전에 관한 행동지침 등도 '선진국'이 소극적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적 리더쉽의 실패

국제무대에서 '북'측 정부와 비교해서 '남'측 정부는 교섭준비가 불충분하다. 국제기관의 결정이 국내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도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국제교섭에 충분히 인재와 재정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자국의 의견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자국 이익에 배치하는 조항에 찬성해 버린다. 이러한 상황은 WTO와 같이 국내법을 구속하는 조약의 교섭에서는 특히 위험하다. 많은 정치지도자는 환경과 개발의 현황이 부정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개인의견을 말하지만, 자유화의 큰 흐름에 휩쓸려서 비즈니스 엘리트의 이익이나 요구를 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유화의 힘은 지나치게 거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의 패러다임이 부활할 조짐도 있다. 세계화의 한계와 실패가 명백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간에 반감이 생기고 정책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다. 요하네스버그서미트는 도상국의 지배자층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문제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리우정신과 협약의 재확인

리우합의의 기본선은 명확하고 지금도 유효하다. 개발의 목표인 빈곤의 감소와 기본적 필요의 제공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개발의 목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생태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패턴을 공정하게 바꾸는 것이고 현재 남용되는 자원을 보전하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켜 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국제, 국내의 자원관리의 공정성과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용방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정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세계질서를 위한 제안은,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정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 사람들의 참여는 이러한 질서를 위한 필요조건이고 국내 및 국제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성만 추진하는 정책만 가지고는 환경친화적인 세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없는 환경위기의 해결책은 다시 또 불공정과 부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침몰하고 있는 지구서미트[2)]

- 바리준비회의의 실패 -

이노오에 레이꼬(PARC 대표)

인도네시아 바리에서 5월 27일 ~ 6월 7일에 열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서미트(요하네스버그서미트)’를 위한 제 4차 준비회의는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6월 5일 폐막하는 일정이 각국 정부 대표단의 발을 묶고 2일간 회의를 연장하고 7일에는 심야까지 논의를 계속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리우서미트가 열리고 10년째가 되는 금년 8월말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서미트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1992년에 채택한 아젠다21의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 초안을 만드는 최후의 준비회합으로 118명의 환경, 금융 담당장관을 포함해서 6,000명의 대표단이 휴양지 바리섬에서 방대한 예산을 소비하며 준비회의까지 합치면 장장 2주일 가까운 회의를 했는데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영국대표단이 이 회의에서 소비한 돈은 18만파운드(약 3억2천만원)라고 한다. 일본정부대표단의 비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개발도상국 정부대표단은 사람수도 적고 선진국만큼 비용을 쓰지 않았다지만 큰 부담이었고 대표단의 사람수가 적다는 자체가 정보의 입수나 교섭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상례라 하겠다.

리우 이후 10년이 지났다고 요하네스버그 회의를 통칭 ‘리우+10’이라고 하는데, 벌써 ‘리우-10’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회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기분을 표명하고 동시에 지난 10년이 환경의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후퇴했다는 것을 말한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에 열린 리우서미트에서는 남북의 대립이 있기는 했지만 NGO의 활동도 있었고 ‘아젠다21’이라는 합의문서를 채택하기까지 했다.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자는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북’측이 그 책임을 다하는데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도 합의했다. 이것을 ‘공통이지만 차등 있는 책임의 원칙’으로 확인했었다. 리우서미트는 환경문제를 커다란 정치적 과제로 부각시켰다는 의

2) 일본 대표적 NGO인, PARC(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의 잡지 『オルタ(Alternative)』. 이 글은 2002년 7월호 특집인 「리오+10」 내용 중에서 번역

미에서 획기적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후 10년간 일어난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상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의 세계화이다. 삼림면적은 크게 축소하고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고 식량위기와 물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에서 무역량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국제금융은 더더욱 비대해졌다. 냉전종식에 따른 구미각국의 관심은 동유럽의 이행경제로 나갔으며 재정삭감이라는 과제를 전제로 아프리카 등 최빈국의 채무위기가 표면화됐다. 채무부담은 최빈국의 최빈층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1994년 WTO발족이 상징하는 바, 가속하는 무역의 자유화와 자금이동의 자유화는 가진 자에게만 혜택을 가져다주었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 WTO가 힘을 갖게 되는 한편에서 국제연합은 힘을 잃고 예산조차 뜻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요하네스버그를 위한 준비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과 금융, 환경이라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어떻게 관련시켜서 계획화하는 문제와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형태와 예산이 처음부터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UNEP의 '지구환경 Outlook'은 '시장이 첫째인가, 지속가능성이 첫째인가'가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리준비회의에서는 실로 이러한 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보건위생의 혜택을 늘이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막는다는 등 목적달성에 기한을 정하는 일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구 서미트는 침몰하고 있다고 WWF 등 환경단체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분노의 편지를 보냈다. "요하네스버그는 리우의 유산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편지에서 말했다. 행동계획은 "행동하지 않는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된 큰 원인은 미국의 태도 때문이다. 미국은 보건위생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를 2015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기한을 두는 것조차 반대했다. 물론, 교토의정서에서 실천을 언급하는 것 같은 문구는 모두 부정했다. 몇몇 NGO는 호주, 캐나다, 게다가 일본정부가 미국에 동조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전 같으면 개발도상국과 미국사이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이 기대된 EU가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금년의 EU의장단이 스페인이기도 해서 EU도 통일된 견해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행동계획은 중요한 포인트를 괄호안에 넣어둔 채(합의를 이루지 못한 문서에는 괄호가 붙어있다.) 요하네스버그로 보내지게 되었다. 각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자국정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있다. 요하네스버그 서미트에서는 국가원수의 참가가 상정되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영국의 블레어 총리뿐이다. 부시는 참가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의 합의를 거부하고 전 세계의 항의를 받느니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선택이

아닌가!

바리에서 결정한 건 “행동하지 않는 계획”[3)]

- 국제 NGO 3개단체에서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귀하”

지금 진행되는 요하네스버그 지구서미트 준비상황에 대해서 바리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귀하가 5월 14일 연설에서 호소한 바와 같이 다음 주가 요하네스버그 서미트에 관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결과가 필요한, 또 달성 가능한 5가지 구체적 분야’로 물.위생, 에너지, 건강, 농업, 생물다양성을 들고 “현재의 기술과 자원을 이용하면 나아질 수 있는 5개 분야”라고 말한 귀하의 연설을 우리는 환영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정치적 약속은 허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서미트에서 “대체가 없는 하나뿐인 혹성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귀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각국 정부는 인간과 혹성의 이익보다 기업에 의한 글로벌리제이션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자연과 인간의 역사에서 새롭고 희망찬 장을 열어가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가능하다”고 한 귀하의 비전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 환경적, 사회적 제약을 가하자는 글로벌한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미트 사무총장 드사이씨는 요하네스버그서미트는 “생색이 나지 않는 사업에서 크게 탈피하는 길로 나아가는 특별한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국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미트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에밀 사림박사는 “이제까지 해 온 것을 하고 있다간 우리는 침몰해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 지금 지구서미트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리에 모인 각국 정부대표가 하는 일은 생색이 나지 않는 일보다 더 못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회의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요하네스버그는 리우의 성과까지도 없애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우+10회의’는 ‘리우-10회의’로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하네스버그를 귀하의 유엔밀레니엄선언 실현을 구체적으로 전진시키는 것이 되게 하려는 점에서는 귀하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하네스버그의 준비문서에 회의의 목적이나 시간표가 없다는 것은, 밀레니엄선언의 목적실현에 중대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문서에

3) 일본 대표적 NGO인, PARC(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의 잡지 『オルタ(Alternative)』. 이 글은 2002년 7월호 특집인 「리오+10」 내용 중에서 번역

있는 목표설정과 시간표, 자금에 관한 부분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한 조지 부시 정권의 교섭태도를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교섭에서 적어도 성공을 거두려면 정치적 압력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최소의 합의기준”이 약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행동계획”은 바리에서 더욱 약해졌으며 “행동하지 않는 계획”이 돼버렸습니다. 흡사 사회나 환경에서 일어나는 참극의 레시피(Recipe)입니다. 귀하가 5월 14일날 연설에서 지적한 5가지 기본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4가지를 포함한 행동계획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서미트를 개최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재고해주기 바랍니다.

1. 목표설정과 타임프레임
2. 실시방법과 재원
3. 조직적 필요성
4.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준수

각국 원수 및 유엔가맹국정부, 바리회의와 요하네스버그회의 개최국에 대해서 지금 즉시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NGO와 협력해서 2년의 준비과정 동안 착실히 일을 해왔습니다. 이 편지의 부속문서에는 준비과정을 설정한 유엔총회결의에 있는 권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안을 열거했습니다. 지구와 지구 서미트는 구출되어야 하며, 침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귀하의 적절한 행동을 기대합니다.

5월 31일 바리에서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WWF

보복(Blow-backs), 21세기의 키워드[4)]

토다 키요시(戸田 清)[5)]

1. 시작

국제정치학자 찰즈 존슨의 『블로우백, 미 제국의 업보』가 작년에 출판되면서 ‘블로우백’이라는 말은 단박에 화제가 됐다. Blow-back은 번역이 쉽지 않은 말이다. ‘앙갚음’, ‘복수’라는 말도 머리에 떠오른다. 존슨 교수는 “미 제국주의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제 3세계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는 테러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래서 동시다발 테러(2001년 9월 11일)가 터지자 ‘테러를 예언’했다고 화제가 되었다. 본래 보수주의자인 존슨이 좌파인 월러스틴이나 촘스키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2. 제 3세계로부터의 블로우백

14세기경까지는 중국문명(항해용 나침반, 화약, 인쇄술, 종이라는 4대 발명을 상기할 것)과 이슬람문명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중국기술이 르네상스 이후의 서구기술에 추월당한 것은 왜냐?”는 것이 과학사학자 죠세프 니이덤이 제기한 ‘니이덤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슬람문명에도 해당된다. 서구가 1100년경의 중국의 기술수준을 따라잡은 것은 1700년경이다. 이른바 ‘14세기 아랍세계의 경제적 파탄’까지는 이슬람도 경제면에서나 과학기술에서 중국과 함께 세계의 선진지역이었다. 유럽문명의 ‘따라잡고 추월한다’는 말의 상징적인 출발점은 1492년의 이베리아만에서 일어났다. 바로 이 해 1)그라나다함락과 이슬람으로부터의 국토회복(레콘키스타) 2)유태인추방 3)이베리아출신인 콜럼부스의 신대륙발견, 세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16세기와 17세기의 과학혁명과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서구의 과학.군사적 우위는 확립되었다. 16세기에 시작된 신대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의 부의 수탈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콜럼부스 이후 500년’동안 서구는 신대륙 선주민에 대한 홀로코스트(제노사이드)나 아프리카인의 노예화, 그리고 ‘제 3세계’와 ‘자연’에 대한 수탈을 자행했다. 예를

4) 이 글은 『No War(非戰) – 戰争が答えではない(監修 : 坂本 龍一 + Sustainability for Peace, 幻冬舍, 2002년)』에 게재된 글을 번역

5) 1956년 오오사까에서 출생, 나가사끼대학 환경사회학부 조교수. 반원전, 혐연(嫌煙)권,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정지 주민소송, 나가사끼 산업폐기물 소송. 저서에는 “환경정의를 위하여” 등 다수

들면, 라스 카사스는 1495 ~ 1503년 사이에 약 300만명의 카리브 선주민이 학살, 노예화, 착취노동, 역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구미인은 "이슬람교도는 호전적"이라고 말한다. 정치 경제적 모순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문화나 문명, 종교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이지만,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는 동안 기독교의 편파성과 잔혹성이야말로 타종교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십자군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잔학행위, 종교재판, 마녀사냥, 선주민족 대학살(이것 역시 나치의 만행과 더불어 홀로코스트이다), 노예무역 등은 중세 말에 시작하여 근세에 정점을 이룬다. 근대에 끝난 마녀사냥에는 약 20만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그 중 약 10만명이 화형 등으로 살해(대부분이 여성)됐는데 모두 원죄(아무런 죄도 없는 범죄)인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녀재판은 1692년 메사추세츠주 세람에서 약 200명이 고발당하고 남성을 포함해서 20여명이 교수형에 처해진 것인데, 그들 중 마지막 5명(모두 여성)이 원죄로 판명된 것은 놀랍게도 2001년 10월 31일이다. 309년이나 걸렸다. 대대로 이어온 유족들의 고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뿐이다.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형사자가 많았던 유럽 각국의 마녀재판의 뒷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하간에 누군가 '원죄의 역사'를 쓴다면 그 제1장은 '마녀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근대민주주의는 폭력을 완화했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자칭 엘리트는 '불량한 자들의 집단을 학살해도 좋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자코뱅 정권의 '반혁명토벌' 방데전쟁(1793)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유일한 원자탄 투하국'인 미국이 베트남 등 많은 곳에서 실현하고 있다. 1965년 인도네시아 정변에서 '공산주의자' 등 수십만명이 학살당했는데 이것도 미국의 묵인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아프칸 공습에 따라 미국내에서는 파쇼체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상징은 시손빌 고교사건이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고교생 케이티 시에라(15세)학생은 반전 티셔츠를 입고 보복전쟁중지를 주장하는 '아나키즘클럽'의 결성을 호소하는 전단을 뿌리고 약 20여명의 찬동자를 얻었는데 학교당국은 정학 3일의 처분을 내렸다. 시에라학생은 고교당국을 헌법위반(표현의 자유침해)으로 제소하고 스스로 원고진술을 했는데 11월 1일의 판결은 정학처분을 인정하였다. 여하튼 '어린이 권리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의 터무니없는 대응이라고 하겠다. 시에라 학생의 변호사는 주 최고재판소에 상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촘스키가 말한 바와 같이 구미(19세기부터 일본도)에서는 약 500년간 국가상호간에, 그리고 제3세계에서 수없는 학살과 학대를 감행하였는데 "9월 11일의 학살은 그 규모면 보다 방향에서 특이"하다. '방향'이란 종래와는 반대로 '제3세계로부터 미국으로'를 말한다. "토마호

크 발사는 전투행위가 아니다"라는 나까따니 일본방위청장관 발언에 대해 코이즈미수상에게 항의(2001년 10월 16일)할 때 자미라 타까하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라크 경제제재에 의해서 매월 아이들을 중심으로 4천에서 6천명이 사망하고 있다. '매월 조용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 6천명의 죽음은 큰 소동으로 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 수만명의 죽음이나 이라크의 수십만의 죽음(그 중 대다수가 아이들)은 별 것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은가! 미국은 이스라엘의 국제법위반을 묵인했고 이라크제재의 책임은 구미를 비롯한 제재 찬성국과 제재를 초래한 후세인에게 있다. 이라크와 코소보의 민중에게 열화우라늄탄을 쏟아 부어 소아백혈병의 다발을 가져 온 미군은 지금은 아프카니스탄 민중에게 '클러스터(다발)' 폭탄을 퍼붓고 있다. 클러스터 폭탄은 하나의 커다란 폭탄속에서 수백개의 소형폭탄(펩시콜라캔 크기)이 흩어지는 것인데 대량의 불발탄이 남아 있어서 전투 후에도 사람을 살상한다. 이것은 대인지뢰 금지조약위반이다(미국은 비준하지 않았으니까 써도 괜찮다는 것인가?) 게다가 투하식량 팩과 모양이 똑같아서 분간할 수 없는 노란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투하한 미국 스스로가 라디오방송으로 주민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아사히신문 2001년 11월 1일).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식량팩을 푸른색으로 칠하는 작태를 보여주었다(아사히신문 11월 3일). 그러나 지뢰원에 낙하될 경우 식량을 주우려는 주민이 폭사하는 위험성은 방치하고 있다. 또, 토마호크 미사일의 비행안전장치나 벙커버스터(지하관통폭탄)의 관통력 강화재료로 열화우라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열화우라늄을 사용하면 이라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아프카니스탄 아이들에게도 소아백혈병이 다발할 것이다. 11월 1일 공습에서 아프카니스탄 최대의 카자키 댐파괴의 위험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파괴되면 수천명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 열화우라늄연구회의 야마자키 히사타까씨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건 제네바조약 제 1추가의정서 56조를 위반하는 '환경무기'가 된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공습을 감행하는 영국은 1910년대의 악명 높은 '세가지 얼굴외교(영불 비밀협정, 아랍인과의 약속, 유대인과의 약속)'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비극의 원인을 만든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구미 각국은 수백년동안 제3세계의 비난을 받았는데 최근 수십년간 미국이 '돌출'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부시대통령(패거리들과 함께)의 오만함은 유별나다. 지구온난화방지 교토의정서 이탈, IBM(대륙간 탄도탄)조약의 방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방해, 생물무기금지조약의 방해, 국제연합 반인종차별 더반회의에서의 퇴장, 그리고, 탄저균테러가 있은 후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생물무기금지조약의 규제강화를 호소하기 시작했다.(아

사히신문 11월 3일). 무한정의(infinite justice), 영속적 자유(enduring freedom), 고귀한 독수리(noble eagle)등의 작전명을 보면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제약업계와 유착한 에이즈약의 지적소유권 문제에서 제 3세계 민중의 생명건강을 경시한 죄상이 있었다 하지만 만약 엘고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동시다발테러는 없었을 것이다. 부시는 갖가지 도발행위로 최초의 대형 블로우백을 유발한 대통령으로 인간역사에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21세기 최초의 해에 일어난 테러범죄는 500년간 짓밟혀 온 제 3세계가 일으킨 '블로우백(보복)'의 상징이 틀림없다.

3. 동물로부터의 블로우백

유명한 소의 질병 두 가지가 동시에 인류를 공포에 빠뜨렸다. 근대축산기술과 생물무기는 일견 대조적이지만 근대축산도 그 저변에는 폭력성을 숨겨 놓은 게 아닐까? 소가 의식적으로 인류에게 반항할 리는 없다. 에이젼트(대행자)는 테러리스트(네오나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나 사료업자(렌더링공장) 등, 인간들이다. 그러나 탄저병과 광우병은 어느 의미에서는 오랜 동안 짓밟혀 온 동물들의 블로우백이 아닐까? 확실히, 축산에는 1만년의 역사가 있는데 근대축산의 폭력성은 두드러진 데가 있다. 햇빛을 차단하고 운동을 못하게 하고 음식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약을 남용하고 초식동물의 입에 육골분을 밀어 넣는다. 살찌는 능력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시키고 수명이 다하기 전에 도살한다. 만약에 소나 양에도 지성이 있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류를 보고 "맛 좀 봐라" 하고 고소하게 생각할 것이다.

4. 자연으로부터의 블로우백

서구 근대문명의 대량채취,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매우 악화시켰으며 자연에 대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 야생생물을 대량으로 절멸시키고 방사능과 환경호르몬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세또나이까이의 5배가 되는 어패류 생산능력을 갖는 보물의 바다, 아리아께까이의 뻘밭을 파괴하고 광대한 불량농지를 만드는 국영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인류가 지구환경문제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것은 파괴되고 짓밟힌 자연으로부터의 블로우백이라고 생각한다.

5. 근대세계시스템의 종말은 시작되었다

현재 세계는 16세기 이래의 ‘근대세계시스템’이 내부모순을 축적시켜 위기에 빠져들고 있으며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들어섰다는 월러스틴의 학설에 나는 동의한다. 근대세계시스템의 얼터너티브(대안적 모델)를 지향했지만 서브시스템(종속물)으로 끝난 소련 사회주의는 20세기말에 붕괴했다. 지금은 본거지 미국의 시장원리주의와 군국주의가 말기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교토의정서 이탈, IBM조약이나 생물무기조약방해, 국제연합 반인종차별 더반회의에서 퇴장, 국제법위반, 아프카니스탄 보복공습 등, 더구나 아프카니스탄 공습에서는 지뢰제거 NGO의 파키스탄인 4명을 비롯해서 이미 수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야말로 최대의 불량국가라고 반세기전부터 미 제국주의와 소련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일관하여 비판한 촘스키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미국은 테러범의 사형을 부르짖었지만 영국이 “사형폐지에 예외는 없다”고 반론한 에피소드도 흥미롭다(英, 선데이 텔리그래프 2001년 10월 7일).

근대세계시스템을 대신하는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 이것이 지금의 문제다. 이것은 인류가 수백년에 한번 부딪치는 커다란 문명론적 과제이다. 제3세계와 자연으로부터 수탈해 온 서구근대문명은 남성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페미니즘과 젠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통속적으로 남성은 이성적, 여성은 감정적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테러와의 전쟁’ 논의에서는 그야말로 그 반대의 광경이 인상적이다. 미국연방의회 하원에서 420대 1로 흑인여성 바바라는 보복전쟁에 반대했다. 제 1차세계대전 당시에도 여성의원 한사람이 반대했었는데 남성의원이 감정에 사로잡힐 때 소수의 여성이 냉정한 것은 미국의회의 ‘전통’인 듯 싶다. 앞에서 말한 여고생의 예도 있다. 미국의 몇몇 선주민부족에서는 전쟁에서 사망자가 생기거나 생길 것 같으면 여성이 전투중지를 명령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이나 영국의 여론조사에서도 여성이 보복전쟁이나 전쟁협력에 더 부정적이다. 아사히신문 11월 3일자 ‘텐세이징고’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여자의 평화(기원전 411년)」를 인용했는데 호전적이고 감성적인 남성과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여성의 도식은 지금도 건재하는 듯 싶다.

보복.전쟁은 100배의 테러리즘이다 !![6)]

하워드 진(Howard Zinn)[7)]

---

6) 이 글은 『No War(非戰) – 戰争が答えではない(監修 : 坂本 龍一 + Sustainability for Peace, 幻冬舍, 2002년)』에 게재된 글을 번역

7) 1922년생, 미국의 진보적 역사가, 보스톤대학 명예교수. 조선노동자, 공군병사 등을 거쳐 공민권운동, 베트남반전운동에 참가

텔리비젼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화염에 쌓여 백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먼지와 연기 속을 혼란과 공포감으로 현장에서 달아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생매장되고 산더미 같은 벽돌조각 밑에서 곧 죽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납치당한 여객기의 승객들이 충돌,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공포감에 젖었을까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광경에 나는 공포를 느끼고 구토할 것 같았다.

다음에 우리들의 정치지도자가 텔레비젼에 나타나자 나는 다시 공포를 느끼고 구토할 것 같았다. 그는 보복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20세기의 역사에서, 보복과 복수와 전쟁의 100년의 역사에서, 테러리즘과 대항테러리즘의 100년의 역사에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끝없는 우를 범하는 역사에서,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하고…….

우리는 대의를 위한다는 옳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그게 누구이든 맹렬한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패닉으로 반응하고 자기가 얼마나 터프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나선다. 대통령은 선언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스트를 비호하는 국가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는다”라고. 아프카니스탄을 폭격하고, 폭격은 불가피하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테러리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테러리즘을 실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낡은 사고방식, 행동양식이다. 한번도 잘 된 적이 없다. 레이건은 리비아를 폭격했으며 부시는 이라크에, 클린턴은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였고 수단의 제약공장을 폭격했다. 모두 테러리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뉴욕과 워싱턴의 참극이 일어난 것이다. 폭력에 의해서 테러리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끝났으며, 그것은 더욱 더 테러리스트를 부를 뿐이라는 것은 이제 와서 보면 명백하지 않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가. 팔레스타인이 장치한 자동차폭탄은 폭격기와 탱크에 의한 이스라엘정부의 공격을 부른다. 그것은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방법은 쓸모가 없으며 쌍방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갈 뿐이다. 그렇다. 이것은 낡은 생각이며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희생이 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품고 있는 반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 거기서 미국은 네이팜탄이나 클러스터폭탄으로 농민이 사는 마을에 테러공격을 감행했다. 라틴아메리카 - 미국은 칠레

나 엘살바도르, 그 밖의 나라의 독재자들을 죽이고 살인집단을 지원했다. 이라크 -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100만명이 죽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첨단무기를 공급하는 가운데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의 점령지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무자비하게 군사점령 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텔리비젼에서 목격하는 광경이 세계각지에서는 이미 오랜 동안 계속되어 왔다. 사람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경험했는지 이제 가까스로 알기 시작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일부가 소리 없는 분노를 넘어서 테러행위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3000억달러의 군사예산은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전세계에 주둔하는 군사기지, 전세계 바다에 배치한 미국함대는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지뢰나 미사일방어시스템도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재고해야 하며 자타의 국민을 억압하는 나라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정치가나 미디어가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의 전쟁은 반드시 무차별 전쟁, 죄 없는 사람이 희생하는 전쟁, 아이들이 죽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테러리즘이다. 그것도 100배나 확대된 테러리즘이다. 우리의 안전은 국가의 부(富)를 총이나 군용비행기나 폭탄이 아니라 자기나라의 민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전체의 무료의료, 교육과 주택, 정당한 임금의 보장, 만인을 위한 환경 등이다. 우리는 정치지도자들이 말하는 자유의 제한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안전은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보복과 전쟁을 부르짖는 정치지도자나 군지도자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허물어진 벽돌더미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나선 의사, 간호사, 소방수, 경찰관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이 우선 염두에 두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치료하는 것이고, 복수가 아니라 공감이다.

2001년 9월 15일

모든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연대[8)]

- Solidarity against All Forms of Terrorism -

반다나 쉬바(Vandana Shiva)[9)]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9월 18일에 열렸다.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 공격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몇백만명이라는 사람들이 오전 10시부터 2분동안 묵념을 하였고 나도 같이 했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다른 테러와 폭력행위에 의해서 희생된 수백만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든 그것에 저항하자는 맹세를 새롭게 했다.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나는 라쿠슈미, 라이버리, 그리고 스라남과 함께 오릿사주 카시풀지구의 조디아 사히마을에 있었다. 라쿠슈미의 남편 가비 조디아는 최근 굶어죽은 20명의 부족민의 한사람이다. 같은 마을에서 소바르나 조디아도 똑같이 사망했다. 그 후에 우리는 바라말마을에서 싱가리와 만났지만 그는 남편 사다하와 큰아들 스랫트, 작은아들 파이라, 그리고 의붓딸 스밀라도 잃었다.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고의로 식량을 보내지 않은 게 세계은행에 의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의 핵이 되어 있다. 인도의 공공분배기구(Public Distribution System = PDS)를 해체하는 것이 세계은행의 조건인데 지출삭감의 명목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런데 식량보조를 위한 예산은 1991년에 280억루피에서 2001년에는 1400억루피로 부풀어올랐다. 세계은행이 식량보조를 인상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돈이 곡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것은 식량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PDS의 구입가격이 하락해서 더더욱 저장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식량보장은 파탄에 이르러게 되었다. 나는 기아의 희생자가 된 부족민의 가족들이 2분동안 묵념을 하는데 참가했다. 창고 안에는 6천만톤의 곡물이 썩고 있다는데……. 나는 사람들을 빈곤과 기아로 몰아넣은 경제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테러의 한 형태와 다르지 않다. 마하라슈트라, 라자스탄, 오릿사 등지에서의 아사는 우리들의 식량시스템이 허물어지는 징후이다. 카시풀은 일찍이 자연의 혜택이 넘쳐 있었다. 본래 아사 따위와는 관계가 없는 땅이다. 그런데도

8) 이 글은 『No War(非戰) – 戰争が答えではない(監修 : 坂本 龍一 + Sustainability for Peace, 幻冬舍, 2002년)』에 게재된 글을 번역

9) 1952년 인도에서 출생. 82년에 설립한 과학·기술·자연자원정책연구재단에서 일함. 칩코운동 등 환경보호나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운동에 깊이 관계하면서 개발·농업·GATT등 갖가지 문제에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이론가. 93년에 'Right Livelihood' 상 수상

자연과 부족사회에 대한 폭력의 파도에 의해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다. 산업과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부족의 자원을 수탈하는 한편에서 송두리채 헐벗은 부족민들에게 복지와 생활보장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국가정치 때문이다. 카시풀이나 기타지역의 아사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원을 약탈당하고 식량박탈, 경제개혁정책의 보장시스템, 그리고 기후변동의 영향이다. 2년이나 계속한 가뭄 때문에 곡물이 자라지 않았고, 금년에는 오히려 계절을 벗어난 너무 많은 비 때문에 또다시 곡물이 타격을 받았다.

20년전 펄프공장이나 제지공장은 카시풀의 숲을 없앴으며 지금은 가까이에 있는 안드라 프라데시에서 유칼리를 들여오고 있다. 펄프산업에 의한 테러 때문에 이 지역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르웨이의 하이드로와 캐나다의 알칸 인디코, 인도의 발코 스타라이트 등 거대한 채광기업이 새로운 테러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카시풀의 웅대한 구릉지 안에 있는 보크사이트를 노리고 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료인데 알루미늄은 코카콜라 캔이나 전투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산, 하나하나의 산을 자연이 몇 천년이나 걸려서 만든 세계무역센터라고 상상해보자. 세계가 9월 11일에 경험한 것보다 심한 참변이 도대체 얼마나 일어났는가 생각해보자. 탐욕스러운 산업과 시장에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1983년 두운계곡에서 광업에 의한 환경테러리즘을 막았다. 최고재판소가 광산을 폐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80년대에 쟁취한 생태계측의 승리는 세계화정책에 의한 환경규제완화로 허물어지고 말았다. 광업은 '자유화'되고 기업은 도처에서 광물을 캐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알루미늄기업은 카시풀 부족민의 토지를 탐내고 있다. 그러나 카시풀의 여러 부족은 고향을 떠나는 걸 거부하고 비폭력적 저항운동으로 토지와 지구를 지키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지킨다"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중년의 여성리더 묵따 조디아는 18일 카시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구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딸이죠. 채광기업은 우리 땅에서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신과 창조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준 게 아닙니다. 정부에게 우리의 땅을 빼앗는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자원을 빼앗는 것도 테러리즘의 하나, 이를테면 기업테러이다. 나는 이제까지 이러한 기업테러의 희생자들과 연대해 왔다. 이런 테러는 200개 마을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미 사람들의 생명까지 빼앗고 있다. 2000년 12월 16일, 경찰은 주민을 살해했다. 아비라슈는 이 때 경찰에게 피살된 한 사람이다. 당시 그의 처 스바루나 조디아는 임신중이었다. 나는 그녀와 만나기 위해 마이칸나 마을을 찾아갔다. 스바루나는 아버지가 무참하게 살해된 후에 태어난 여자

아기를 데리고 오두막집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물으니 나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샥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평화적인 형태로 힘을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부족이 보여준 채광기업과 경찰국가의 테러에 대한 10년이 넘은 저항운동정신이다.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하나가 된 힘이다. 최근 40년간 댐 때문에 집을 잃고 쫓겨난 5천만명의 부족민들도 또한 테러의 희생자이다. 그들은 테크놀러지와 파괴적 개발의 공포와 직면해왔다. 오릿사를 엄습한 초대형 사이클론(인도양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사망한 3만명, 그리고 기후변동과 화석연료에 의한 공해 때문에 홍수, 가뭄, 사이클론이 더욱 심해졌을 때 생명을 잃게 될 몇백만명의 사람들에게는 쿄오또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한 부시는 또 하나의 테러리스트에 다르지 않다. 시애틀에 모인 시민들은 WTO에게 세계테러리스트기관(World Terrorist Organization)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WTO의 규칙은 몇백만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권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9월 11일의 비극은 군사, 테크놀러지, 경제, 정치 등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방지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테러는 군사적 발상이 아니면 안 된다. 무력은 불안정과 공포감을 만들고 오히려 테러를 키우게 된다. 지금 벌어지는 '테러에 대한 전쟁'은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 평화와 안전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외국인 배척의 물결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인도인, 아랍인, 아시아인들이 습격당하고 살해되고 있다. '보복'적 분위기에 힘을 얻은 모든 원리주의자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보장을 첫째로 하는 문화뿐이다. 9월 11일 이후의 세계를 '문명과 야만'이나 '민주주의와 테러리즘'간의 전쟁이라고 자리매김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것은 거울처럼 서로의 가치관을 비쳐주는 두 형태의 테러리즘이다. 어느 쪽이나 폭력주체의 문화이고 같은 무기, 같은 기술을 쓰는 폭력과 공포를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는 서로의 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장소의 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희생자가 된다. 참된 충돌은, 평화와 안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전세계의 시민들과, 그러한 평화와 안전을 부정하는 폭력과 공포의 힘과의 싸움이다.

조디아 사히의 부족민들은 마을의 제단에서 나를 위해서 등을 밝혀 주었다. 제단은 조그만 돌이었다. 그런 부족의 제단은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빌딩과 물리적으로 비교하면 하찮은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깊고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관대한 평화적 우주를 구체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구와의 평화, 인간간의 평화, 인간에 내재하는 평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평화의 문화가 아닌가.

전세계가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를 몇 번이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와 강욕 그리고 세계화의 폭력에 의해서 파괴된 몇백만의 성스러운 제단이나 가정 그리고 농장에는 아무도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암흑의 화요일’의 희생자를 추도할 때 다른 형태의 테러나 폭력에 의한 방대한 숫자의 감춰진 희생자와의 연대도 강화하자. 그리고 폭력이나 테러리즘은 지구에 사는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이고 무참한 역사의 순간을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힘으로 틀림없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9월 18일 오릿사주 카시풀 지구에서

이매진(Imagine)[10]

폴 호켄(Paul Hawken)[11]

우리는 『바가바드 기타(힌두교의 성전)』나 『가락지 이야기』와 같이 어둠과 광명이 교차하는 이야기에 이끌리는 하나의 신화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생명시스템이 쇠퇴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속되고 있다. 상업적 발전은 일견 바람직한 생활을 가져다주지만 한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구와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기업활동을 토대로 하면 어떤 야생생물보호구나 원시자연이나 선주민문화는 모두 다 글로벌시장경제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산림이나 어장, 산호초, 표토, 물, 생물다양성, 안정된 기후 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대지와 바다와 대기는 생명유지기반의 기반이 아니라 폐기물 처분장이 되고 말았다.

새로운 세기의 개막을 덮쳐버린 거대한 상실은 눈을 감고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 눈을 감는다면 무지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나는 비가 오고 믿을 수 없는 기적들, 지구 반대쪽까지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가는 후조나 제비 등의 지성(知性) 같은 것을 믿는다. 또 우리 인류에는 찬란한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들 개개의 미국인이 미지의 땅과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싹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전체로서 하고 있는 짓을 개인적으로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락지 이야기』에 나오는 간달프의 말과 같이 폭풍은 닥쳐왔지만 조류의 흐름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포가 없으면 용기도 나지 않는 것과 같이 희망은 절망에 직면했을 때 솟아나는 것이다.

내가 상상하는 미국의 가능성이란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물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데 있다. 만약에 글을 읽을 수 없으면 책이라고 해도 불쏘시개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새들도 그들의 조그만 위속에 소화되지 않는 씨를 담고 하늘을 날면서 숲이나 초원을 키우는 강력한

10) 이 글은 『No War(非戰) – 戰争が答えではない(監修 : 坂本 龍一 + Sustainability for Peace, 幻冬舍, 2002년)』에 게재된 글을 번역

11) 1946년생, 캘리포니아주 출신, 저술가. 20세에 전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연식품회사 ‘일리혼’사 설립. 그후 에콜로지를 중시하는 통(신)판(매)회사 ‘Smith & Hawken’ 사 등을 설립. New Age 비즈니스의 방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다. 저서에 『핀드혼의 마법』,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혁명』 등. http://www.longnow.org

창조자이기도 하다. 이 세계에 치명적 결함과 멸망의 숙명을 볼 수도 있지만, 모든 흐름과 통계자료에 변혁의 가능성을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입고 있는 많은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 어깨로 떠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의 번영에는 단지 국가간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평등한 사람들의 세계를 창조할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겠다.

지구차원의 일람표를 대충 만들어 보면, 신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다음과 같다.

1950년 이래 지구상의 모든 산림의 1/3이 없어지고, 표토의 1/4과 경지의 1/5이 없어졌다. 지난 100년 동안 모든 조류의 1/4이 멸종되었다. 해양에서는 어장의 2/3가 어류를 전부 잡아 버렸거나, 남획이 성행되었거나 괴멸되었다. 이대로 나가면 21세기의 끝에 가면 지구에 서식하는 종(種)의 절반이 없게 될 것이다. 지난 150년 동안에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0%로 증가했다. 우리는 모든 하천의 수량에서 55%를 빼앗고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었다. 30억명의 사람이 하루에 3달러도 안되는 생활비로 살고 있다. 20억명의 사람들은 전기가 없고, 땔감으로 조리를 하고 있다. 똑같이 20억의 사람들은 위생시설이 없으며, 13억은 깨끗한 물을 쓸 수 없다.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그 중에는 기아상태의 사람들도 있다. 21세기 중반에 가서 현재의 지구 인구와 거의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식주와 고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닥쳐오는 세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미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3,600만명이 빈곤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는 1,400만명의 아이들이 포함되고, 그 중 700만명은 6세 미만이다. 이 중에서 2,700만명은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로에 적당하지 않다. 400만명이 건강보험에 들지 않았고, 30만명이 홈리스(Homeless, 집없는 사람)이다. 10대의 임신.중절.마약사용.폭력행위에다가, 유독물질의 방출량은 선진국 중에서 최고치를 간다. 게다가 수감자 수는 중국과 왕년의 소련이 가지고 있던 강제수용소를 능가하는 세계최악이다.

이러한 머리 아픈 정보에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 작은 새들이 위속에 간직한 씨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대하고 무정한 무서운 숫자가 있다. 그러나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일상적으로 이러한 자각을 갖고 생활하는 가운데 조그만 일이라도 오늘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스튜아트 브란드는 그의 저작『The Clock Of Long Now(초장기 시계)』에서 문명에 회복력, 적응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논했다. 과학자는 생태계에 대해서 같은 문제를 연구했다. 특히 변화가 급속한데다 가속이 붙었을 때 문화.세계.자연 등의 시스템은 어떻게 충격을 흡수해서 살아남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또 그것을 존중하는가에 달려 있다. 생물계내에서 생물다양성에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는 작용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생물이나 환경요소가 서로 다른 시간척도로 흔들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꽃.균류.거미.나무.홍토.여우 등은 모두 변화와 반응의 속도가 서로 다르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천천히 반응하는 것이 있는 덕택으로 시스템 전체에 부하가 걸렸을 때 움직이거나 흔들거리거나 양보하거나 한 뒤에 복원과 수복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시간 프레임(Time Frame)이 충돌하는 것이다. 오늘의 지배적인 타임 프레임은 상업적인 것이다. 비즈니스는 신속하고 일반적으로 개혁을 환영하고 변화를 좋아한다. 게다가 일찍이 보지 못할 만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성장하지 못할 때는 징벌을 받는다. 자본의 세계적인 유동성에서 테크노크라트와 금융매니저의 네트워크는 기업이나 투자활동의 승패를 순식간에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자본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루에 2조 달러나 되는 돈을 동원하고 있다. 또 인터넷, 세계규모의 커뮤니케이션, 고속교통수단 등 이런 것이 모두 비즈니스의 속도를 더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두 번째 타임프레임은 문화이다. 이것은 더 천천히 진행된다. 문화적인 혁명은 좀더 깊은 역사적 신조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건다. 페레스트로이카 때 최초에 꽃을 피운 단체는 러시아 정교회였다. 1989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별장에서 가까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나는 승려와 부인들이 기도문을 소리내서 외우는 것을 들었다. 그들의 완벽한 암송은 72년간의 억압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이 생각되었다. 문화는 천천히 변화하는 바탕을 제공하고 거기서 가족, 공동체, 종교가 번성한다. 문화는 아이덴티티(정체성)를 부여해 준다. 변덕스럽고 뿌리가 없는 변화가 빠른 세계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일찍이 없었으리만큼 고양된 것이다.

모든 것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세 번째 타임프레임으로 지구, 자연, 생명이 만든다. 그것은 덧없이 보이면서도 더욱 천천히 시간을 조각하고 항상 존재하면서 문명을 초월한 태초부터의 그윽한 진화의 사이클과 호응하는 시계이다. 우리는 흡사 그 시계가 필요없다는 듯이 팽개쳐 버리고 완만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가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사원, 시, 합창대, 문학, 언어, 박물관, 계단같은 말, 질질끄는 결혼, 유유자적하는 산

책, 라인댄스, 예술……, 이런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치있는 것으로 하고 문명을 지탱하는 저력이 되지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상업적 지배에서는 모두 재정적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것들이다. 우리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모두가 천천히 발전하고 천천히 변화할 수밖에 없다. 상업거래에서는 정치.예술.문화.자연에 대해서 적당한 통제가 있고, 모든 게 천천히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사람과 장소에 대한 빈틈없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그런데 상업체제가 그렇게 행동한 전례가 없다. 비즈니스의 스피드 제고라는 명목에서 전세계에서 언어, 문화, 산림, 어장 등이 뿌리채 파괴되고 있다. 비즈니스 그 자체가 급격한 변화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변화의 속도는 수익자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릴 만큼 가혹하다. 하물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파괴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으로 지속불가능 할 것이다. 천천히 슬로우(Slow)한 시간은 반드시 복권된다.

미합주국(合州國)에는 3만개 이상의 NGO.재단.시민그룹이 사회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그것은 십만개를 넘는다. 그들은 목소리를 합쳐서 환경적 정의, 환경에 관한 기본지식(Ecoliteracy), 공공정책, 환경보호, 여성의 권리와 건강, 인구,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업개혁, 노동권, 기후변동, 무역 룰(Rule), 윤리적 투자, 환경세 개혁, 물, 기타 여러분야에서 폭넓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은 간디의 가르침에 따라서 혹은 항의로 혹은 새로운 구조와 모델 그리고 방법의 창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그룹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서 대개 자금이 결핍하고 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거의 모든 그룹은 자기들이 불면 꺼지는 존재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간직한 더욱 깊은 공통의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그룹의 원리, 틀짜기, 결정, 모델, 선언 등 그 내용을 보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고 하겠다. 과거 힘을 갖게된 운동은 모두 통일화나 중앙집권화된 이념(마르크스주의, 크리스트교, 프로이트파 사상)에서 출발했으며, 그러한 이념을 보급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심의 정신적 모델이나 교의가 변화하고 희박해지고 재창조되는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지속가능성의 운동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다. 그러한 운동이 모든 점에서 서로 동의한 사실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지구와 그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놀랄만큼 공통된다. 생명수여시스템으로서의 지구의 혜택을 서로 나눠갖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그룹은 자족하는 생활을 기본 인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에서는 살인에 손을 대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범죄이며, 가족이 굶지 않고 아버지에게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이 팔려가지 않고 여성을 어머니가 되어도 생활에 막히는 일이 없다. 물과 공기는 잘 사는 자의 독점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 종자와 생명 그 자체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특허를 취득하거나 할 수 없다. 자연이야말로 진실한 번영의 기초이며,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공통이해가 서로 다른 경제분야, 문화, 지역, 단체 등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다.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나 전세계에서 확실한 확산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누군가가 창조하거나 지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수구파에 의한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걸음이 확실한 강력한 운동이며 중앙집권화하지 않고 권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카리스마적인 백인남성이 통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미디어에서는 인지되지 않는다. 사회적.환경적.정치적인 상황이 악화하는 데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은 그 수와 깊이를 더욱더 늘려 나갈 것이다.

우리가 공유하는 진실에 대해서 어떤 힘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확신은 맹목적으로 들떠 있는 낙관주의와는 다르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활동이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바쓸라프 하벨(체코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종래의 세계가 이미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입구에 서 있다. 오늘과 같이 세계에서 10억의 인구가 실업하거나 해고되는 상황은 이미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50년 후에는 그것을 없앨 것을 생각하면 된다. 뜻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 임금노동의 일터를 노동할 수 있는 사람보다 많은 일터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할 뿐인 미국이 세계의 부 30%를 소비하다니 이건 이미 타당성을 잃었다. 타당성을 갖는 새로운 미국이란, 정신적으로 윤택하고 우아하고 소박한 활로를 찾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대삼림이라는 둘도 없는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면, 타당한 세계란 새로이 미래의 원생림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에 인구가 지나치게 증가했다면 타당한 세계란 모든 어린아이들의 탄생은 축복되고 소중하게 양육되는 세계를 실현하면 된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는 없다. 절멸된 종의 다양성을 부활시키려면 500만년이나 걸린다. 그렇지만 앞으로 50년간 환경수복에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기 중 탄소의 식감 대수층(帶水層)의 재보급, 사막화한 토지의 회복, 버팔로나 표범이나 늑대가 서식할 수 있는 회랑지대의 창설, 극한 상황에까지 간 토양의 부활 등에 착수하자.

50년후 자신이 성취한 일을 만족하게 되돌아보는 것은 해리포터의 시리즈를 열심히 읽고 있는 아이들일 것이다. 그들은 얘기를 읽고 이 세계에 마글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애틀에서의 항의행동을 취재한 작가 빌 맥커벤이 서술한 바와 같이 '마글이여 눈을 뜨라'고 쓴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만일 마글이 마법을 인정하지 않는 초합리주의 세계나 경제분석, 제멋에 지친 초성장주의를 의미한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캐로린 캐시(비전(非戰)활동가를 자처하는 라디오 & 웹퍼스낼리티) 그 이름이 '리얼리티 포리스'에 대한 유관한 저항운동의 부활이다. 다시 말해서, 조지 윌즈나 폴 크리그만 따위의 얼굴을 찡그린 평론가들, 속이 빈 정치가들, 격분하는 에코노미스트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야말로 100%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라고 이해할 수 없는 패거리에 대한 저항이다. 시애틀에서는 삐에로, 나비, 장의사, 거북 등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문란한 질서에 아연질색한 마글 대표단의 호텔을 포위하고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었다. 앞으로 오는 50년에서 가능한 것은 훌륭한 뒤범벅이고 놀랄만치 매지컬(Magical)하고 미친듯한 창조적인 세계가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는 지금까지 어디의 누가 쓴 얘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테크놀러지나 도구나 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미국은 아니다. 금전으로 책정되는 미국도 아니다. 인구통계에 의해서 파악되는 미국도 아니다. 왜냐하면, 좋든싫든간에 미래의 미국은 지구의 생명회복에 거는 세계의 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춤이나 의상, 노래, 의식, 마술, 기도, 예배 등으로 풍요하게 장식된 세계, 아이들이나 노인, 얘기꾼을 소중히 여기는 세계, 지구상에 생명이 번성하는 상태를 만듦으로써 잃은 것을 공손하게 복원하는 일이 진행되는 세계인 것이다. 그곳에서 산업에 쓰이는 재료는 장차 계속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 그 사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곳을 걸어다니면서 아직도 그것의 진가를 이해하지 못한 자연의 뛰어난 디자인에서 배우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10년 100년의 단위에서가 아니라 1,000년 단위의 큰 일이 된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봉건적 독재나 강제노동이나 살아 있는 말의 눈을 빼는 경쟁을 버린 사람들, 현재 세계의 추세가 먼 미래까지 미치기 때문에 아직도 커다란 단절을 안고 있겠지만, 연계와 각성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는 국가, 그게 바로 안목을 가진 미국, 지국상의 생명을 지키고 존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판별한 새로운 미국,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궁지를 타개하는 길이다.

전쟁이냐, 평화냐[12)]

- 캘리포니아 고교생의 목소리

후 스나코(風 沙子).대안 제리스[13)]

캘리포니아의 베이에리아는 미국에서도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커뮤니티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고교생들의 가정에서는 19개국의 서로 다른 모국어가 씌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유전자의 계맥(系脈)도 자꾸만 복잡하게 혼합된다. 이것이야말로 글로벌시민이 나날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문화나 말의 차이를 초월해서 서로를 이해하자'는 어른들의 생각은 몸에 밴 일상생활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어른의 흉내를 내서 따돌림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에 대한 행동을 금방 하게 된다.

버클리 고교에서는 3일전에도 이러한 따돌림을 없애려고 '다양 문화제'가 열렸다.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학생들이 각기 민족의상을 입고 시낭송, 댄스, 그리고 'We Are The World'를 합창하고 나서 8명의 학생들이 펼치는 파키스탄 전통춤이 있었고 끝으로 아랍어의 hello와 good-bye를 합창했다.

그날은 고이즈미 수상이 미국에 온 날인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준짱[14)]과 부시군'의 사진을 일면에 실은 지방신문이 하나 있었다. 뭔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가 하고 사서 보니까, 얘기는 10줄 정도밖에 없었지만 마침 그 신문은 'War or Peace'라는 제목으로 고교생들의 목소리를 특집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몇가지 골라서 소개하려고 한다.

• 우리 세대가 평화를 만든다.

이번 사건으로 어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알았다.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한 무지무능한 바보같은 놈들이 테러에 대해서 싸우려고 할까, 싸울 수 있을까하고 꼰대(아저씨)들은 TV에서 지껄이고 있었다. 우리의 친구들은 이번 사건에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이건 어른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데 대한 응보라고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왕따를 놓거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전혀 무관심하거나 반응은 가지각각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적십자에 대량의 혈액

12) 이 글은 『No War(非戰) – 戰争が答えではない(監修 : 坂本 龍一 + Sustainability for Peace, 幻冬舍, 2002년)』에 게재된 글을 번역

13) 베이에리아 통신에서 인용

14) 고이즈미의 애칭

을 헌혈하거나 뉴욕에서 소방관과 함께 피해자나 가족들의 구원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세대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는 것도 우리들이다. 어른들은 그런 걸 보아주기 바란다. 우리는 제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을 모른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어른들은 선거에도 나가지 않고 정치적 지식도 없는 사람이 많고 전쟁체험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에게는 이 나라 정치에 참가할 선거권도 없다. 그러나 나는 우리들의 세대가 테러행위를 종결짓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 엘리자베스 라일리

• 학교에는 여기저기에 '전쟁반대'가

우리 학교에서도 테러의 뉴스를 들은 바로 그 날 누군가 락커에 큰 글씨로 '전쟁반대'라고 썼다. 금방 그 말은 교실 입구나 복도나 자판기 등에 Tm여지고 학생들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썼다. 전단이나 포스터가 여기저기에 나붙었다.'

- 케슬리 데몽

• 파괴나 살인을 빼고 미국에 이바지한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는 미국이 물론 좋지만 군대에 나갈 생각은 없다. 애국심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쟁은 너무나 무섭고 인간다운 행위라고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감에 젖는 심리상태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군대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이바지하려고 생각한다.

- 메어리.휄라라

• 공감대를 만들어 더욱 좋은 세상으로

전쟁은 폭력과 증오의 사이클을 촉진시킬 뿐이다. 정부의 명령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우리가 진실로 세계평화를 바란다면 스스로 무기를 버려야 하며, 돈만 가지고 인생의 가치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라크를 착취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면 더욱더 좋은 안전한 세계가 된다.

- 패트릭.린치

무력으로 싸울 용기가 있거든,
말로 싸우는 큰 ‘용기’를 가져라 !![15]

우에무라 히데아끼(上村 英明)[16]

1. 9. 4 남아프리카 더반

2001년 9월 4일 아침, 나는 인도양을 바라보는 항만도시 더반의 국제컨벤션센터의 테라스에 신문을 읽으려고 커피잔을 손에 들고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 간신히 빈 자리를 찾아내고 옆자리의 여성에게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고 한 모금 마셨다. ‘오늘’의 시작이다. 옆자리의 여성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저널리스트라는 그 여성은 가지고 있던 신문의 일면을 가리키면서 미국정부의 ‘Withdawal(철수)’의 진의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철수?’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내 신문의 일면에도 ‘Heading Home(귀국길에)’라고 크게 쓰고 주인이 없는 미국정부 대표단석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 때 느낀 불길한 감각을 미국의 9.11에 직결시키는 것은 더반에서 이 장소에 있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공통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반인종주의.차별철폐 세계회의와 팔레스타인 문제

이 때 더반에서는 UN이 주최한 5년만에 열리는 세계회의(각국정부, 국제기관, NGO 등이 수만명 단위로 참가)가 ‘인권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 및 이에 관련된 편파성’에 반대하는 테마로 개최되었다. 그 중 정부간 회의는 8월 31일 ~ 9월 8일에, 또 그 성과로서 선언문과 행동계획 이러저러한 NGO의 시점이나 제언을 담아내기 위해서 8월 27일 ~ 9월 1일에는 NGO 포럼 이벤트가 병행되었다. 나도 일본에서 아이누민족이나 오끼나와.유구인(琉球人) 등 ‘선주민족’의 권리보장에 관여하는 NGO의 일원으로 더반에 머무르고 있었다.

---

15) 이 글은 『No War(非戰) – 戰爭が答えではない(監修 : 坂本 龍一 + Sustainability for Peace, 幻冬舍, 2002년)』에 게재된 글을 번역

16) Uemura Hideaki, 1956년 일본 쿠마모또 현에서 출생. 82년 선주민족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시민단체 ‘시민외교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연합을 통한 인권운동을 전개. 동 센터는 그 활동이 인정되어 99년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NGO협의 자격 획득. 걸프전쟁 때는 무기무역금지조약을 국제사회에 제언. 저서로 『선진 민족의 ‘근대사’』 등 다수. http://www3.Justnet.ne.jp/~peace-tax

세계회의에서 논의하는 구체적인 테마는 인종차별, 민족차별과 가문별 혈연, 직업에 의한 차별, HIV.AIDS 감염자 등에 대한 차별, 이러한 차별과 여성.아이들.장애자 차별이 겹쳐진 복합차별 등 광범위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테마 중에 특이한 것이 두 가지 있었다. 아프리카가 개최지라 남아프리카가 호스트(Host)국이기도 하고 식민지주의의 역사평가는 그것에 수반해서 사죄와 보상문제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노예무역’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슬람권 각국이 주장하는 이슬람 차별과 그 상징으로서 ‘팔레스타인 문제’였다. 특히 2000년 9월 28일 현재의 샤론 수상이 이슬람의 성지 ‘하람 샤리프(신전 언덕)’로 반대를 뿌리치고 뛰어들었고, 팔레스타인인의 ‘항의 행동’이래, 이것을 진압하는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이 격화되는 데서 열린 회의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다수 NGO가 참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건국이데올로기인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라고 이스라엘을 ‘인종차별국가’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NGO의 주장에 ‘반유태주의’ 철폐를 요구하는 NGO와의 긴장된 장면도 NGO 회장에서까지 적지 않게 있었다. 단지 흥미로웠던 것은 ‘이스라엘은 세계의 유태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진짜 유대교 율법학자는 항상 시오니즘과 이스라엘에 반대했다’는 플랭카드를 든 유대인그룹의 참가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9월 3일 이스라엘 정부대표는 심의중의 선언과 행동계획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인종차별적인 국제선언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본회의장을 나갔고 미국정부대표단도 이에 동조해서 좌석을 떠났다.

3. ‘간디’, 인연의 땅에서 배워야 할 일

미국이 철수한 진짜 이유는 여하간에 일본인으로 그리고 국제연합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뇌리를 스쳐간 것은 193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당시 마쓰오까 요오스께(松岡 洋右) 수석전권의 국제연맹 탈퇴극이었다. 미국정부는 당초 사상초유의 아프리카계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콜린 파월씨의 출석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준비단계에서 회의가 자기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어 출석자의 랭크를 떨어뜨리거나 불참가를 암시하면서 회의를 견제했었다. 사실, 미국은 2001년이 되자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하기 시작했고 세계회의를 포함해서 UN총회 차원의 회의를 노골적으로 경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될 것 같은 국제기관이나 국제회의, 이를테면 G8 서미트,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경제포럼(WE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이용해서 군사행동을 포함해서 자기들의 뜻에 맞는 선진제국클럽에 의한 국제적인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회의에서 ‘철수’한 것은 미국정부가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얘기할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를 국제사회에 부끄러움도 없이 보여주게 되었다.

만약 9.11 사건이 이슬람원리주의자에 의한 것이라 해도 협의를 거부하는 자세 또는 폭력을 협상보다 우선시하는 자세에서 미국정부와 원리주의그룹은 서로 닮았다고 하겠다. 사실 영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간디가 인종차별반대운동을 시작한 인연있는 땅이기도 하다.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비폭력주의'를 간디는 가장 '용기'가 필요한 투쟁방법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약 무력으로 싸워서 죽을 용기가 있으면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도 말이라는 비폭력으로 싸우는 더 큰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핵과 비폭력[17)]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원자탄이 가져다준 최대의 비극에서 얻어낸 교훈은,
흡사 폭력이 폭력에 대응하는 폭력으로 일소될 수 없는 것처럼,
원자탄도 원자탄으로 대항해서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인류는 비폭력에 의해서만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증오는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증오에 대해서 증오로 대항하는 것은 증오를 깊게하고 더 크게 할 뿐이다.

17) 이 글은 『No War(非戰) – 戰争が答えではない(監修 : 坂本 龍一 + Sustainability for Peace, 幻冬舎, 2002년)』에 게재된 글을 번역

우리도 군대를 만들자 !![18)]

- 비폭력 평화대의 이상과 실현 -

*비폭력 평화대: 제 삼자에 의한 비폭력적 개입의 방법을 실천하는 NGO의 하나이다. 완전하게 비무장한 시민 자원 봉사자가 분쟁 지역에 들어가 거기서 비폭력적인 민주주의 운동, 인권 운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살륙이나 분쟁의 폭력화를 예방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 NGO는 어디까지나 현지의 운동체, 활동가의 요청에 응해 파견되어 현지의 사람들이 대화에 의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밖으로부터 평화나 정의를 강제하거나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현지의 사람들이다.

2002년 1월 말 비폭력 평화대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고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핫쇼(David Hartsough)씨는 교토에서 자신의 체험을 담은 강연을 했다. 아래는 그 강연에서의 질문과 대답이다.

Q:비폭력 평화대란 무엇입니까?

비폭력 평화대는 상설의 국제 비폭력 평화대를 조직해 훈련하는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국제적 프로젝트입니다. 평화대는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살륙과 파괴를 방지해 인권을 보호하고, 현지의 그룹이 비폭력적으로 임해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목적으로 하는 곳은 가능한 한 현지의 그룹과 협력해 작업해 분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폭력의 대규모 보호 서비스(동행, 국제적 존재 감시, 보호를 위한 개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 이것에 가세해 비폭력 트레이닝 같은 여러 가지 평화구축활동)를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지 모체를 가지는 국제적인 시민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비폭력 평화대는 아직 조사.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합중국에

18) 이 글은 비폭력평화대 「News Letter」 일본어판 1호 ~ 4호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을 요약한 것.

있는 NGO피스 워커스의 일부분입니다만, 11개국의 잠정 운영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소집회의에서 국제 NGO로 설립되겠지요.

Q: 비폭력 평화대의 이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989년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서 군대가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해서 현지 교회의 신부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과테말라에서의 PBI(국제평화여단)나 니카라과에서의 위트네스 포 의 활동을 소개하고 필리핀 국내에 거주하는 500여명의 외국인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는 팩스를 보냈는데, 36시간만에 25명이 모였다. 함께 기자 회견을 하고 그들을 죽인다면 우리도 함께 죽여라, 세계가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군대는 결국 습격해오지 않았다.

90년대 유고에서 내전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96년부터 98년에 코소보에 들어갔지만, 너무 늦었다. 알바니아계 주민은 당초 세르비아 정권에 의한 탄압에 비폭력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어쩔수없이 폭력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비폭력주의자들로부터 '빠른 단계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국제사회가 주목해 주면 폭력화 없이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체험으로부터 100명, 1000명의 비폭력 활동가들을 현지의 요구에 응해 파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Q: 비폭력 평화대 프로젝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99년 5월의 헤이그 평화 시민 회의에서 약 9000명이 모여 전쟁의 종결에 대해 논의했었다. PBI나 위트네스 포의 활동은 잘 알려져 있어 간디의 평화대를 보다 대규모의 것으로 실현해 보자라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30개국 가깝게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7명(달라이 라마, 오스카 아리아스-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호세 라모스 호르타-동티모르, Mairead Maguire-북 아일랜드 등)과 300여개의 조직 등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아카프카(마르코스 정권을 넘어뜨린 비폭력 조직으로서 유명)나 캄보디아의 불교단체, 스리랑카의 간디주의자 단체 사르보다야 등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원.피폭으로 반핵운동이 있어서 평화 헌법도 군대를 만들지 않고 평화를 확보한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의 운동과 서로 맥이 통한다.

Q: 평화대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

국제 운영위원회가 있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02년 11월에는 인도 델리에서 설립 총회를 연다. 작년 7월에는 소그룹의 활동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보고서를 냈다. 지금 3개월간의 비폭력 트레이닝용 프로그램을 작성중이고 제안서도 벌써 8개 국어로 만들고 있고 곧 7-8개국어를 더 늘릴 계획이다. 처음에는 풀타임의 대원 200명, 예비대원 400명, 거기에 지원자 그룹 500명이 출발한다. 이 단계에서 연간 8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기존의 소그룹들과 제휴하는 것 외에 유엔과의 협력 관계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만명이 대원모집에 응모해 오고 있으며, 세계 12지역(스리랑카, 민다나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미얀마, 한반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짐바브웨, 나이지리아)의 파견 후보지를 11월 설립 총회에서 1개소로 좁혀 내년 봄에는 제 1진을 파견한다.

Q: 평화대의 기본적은 생각은?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긴장이 폭발하기 전에 현지와 연대해 행동하는 것, 비당파적으로 행동할 것 등이다.

Q: 언론은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전에 분쟁 정보를 알 수 있는가?

벌써 퀘이커나 유니세프 등 별조직이 들어가 있어 서로 연락하고 있다. 영국에 조기 경계 포럼이라고 하는 조사 NGO도 있다. 분쟁지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으로도 언론이 주목한다.

Q: 비폭력 평화대에서는 분쟁지에 몇 사람 규모로 나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파일럿처럼 150명에서 200명 규모로 투입한다. 수단에서는 사태를 즉시 비디오로 촬영해 위성 중계로 세계에 알리고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 유엔 관계자는 이것이 잘 진행된다면 또 하나의 유엔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유엔은 국익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역시 우리는 민중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Q: 평화대와 PBI(국제평화여단)의 차이는?

PBI(국제평화여단)는 북미인 중심으로 83년부터 과테말라로 10명 내외의 사람들을 처음으로 파견했다. 성공했지만 그다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대규모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폭력 평화대의 프로젝트가 태어났다. 앞으로도 상호 보완할 것이다.

******

당신의 지원을!

비폭력적인 방식에 의한 세계의 평화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달성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방식은 모두 실패해 버렸으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시다!

1. http://www.nonviolentpeaceforce.org 를 방문해 보십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비폭력 평화대의 자금 모금활동을 돕고 싶으십니까? 혹은 기찬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lenief@nonviolentpeaceforce.org 로 연락해 주세요.
3. 비폭력 평화대와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고 싶으신가요?
   → info@nonviolentpeaceforce.org 로 연락 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날이 폭력적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비폭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었다면 당신 역시 꿈 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

환경과 反차별 1호	환경과 反차별 2호
	1. 반세계화 • 반자본주의자의 저항운동 - 노이즈(Noiz) • 1999년 11월 시애틀 • 2001년 7월 제노바 • D·I·Y 메시지
1. 전문과학주의라는 환상의 비판 -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구축을 위하여 - 야기 타다시(八木 正) 2. 발전도상국의 환경문제 - 토다 키요시(戸田 清) (발행 : 2002. 4. 4)	2. 반전평화 • 비전(非戰) - 무까이 꼬(向井 孝) • ‘비전(非戰)’ 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담아서 - 미즈타 후(水田 風) • 9.11에 대한 대답 - 나까지마 마사카즈(中島 雅一) • 비폭력평화대(Nonviolent Peace Force) • 히모리씨 이야기 - 무까이 꼬(向井 孝) 3. 환경 • 위기에 처한 물 - 모드 발로 (발행 : 2002. 5. 29)

알림

환경과 反차별 2호에서 「반자본주의자의 저항운동」, 「1999년 11월 시애틀」, 「2001년 7월 제노바」는 『アナキズム 제 1호(2001. 12. 25, (株)ぱる出版, 『アナキズム』지 편집위원회』(『ANARCHISM』 Vol. 1.) 특집 Anti-Globalization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며, 「비전(非戰)」, 「‘비전(非戰)’ 이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담아서」, 「9.11에 대한 대답」, 「히모리씨 이야기」는 미즈타 후(水田 風)가 발행하는 『風』(2002년 1월 경, 4월 경)의 내용을 번역한 것임

21세기는 차별받는 자의 보복의 시대가 된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착취당하고 차별받는 대상의하나라고 한다면, 요즘 일어나는 이상기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지구생태계의 징후는 자연으로부터의 보복이 아닌가 싶다.

보복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을 믿으며 지금 우리의 작업도 그런 세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등대 2

『환경과 반차별』 편집팀이 원체 참새 같은 가벼운 재잘거림이나 장난이 어울리지 않고 진지하고 사뭇 엄숙하기까지 하니, 참 내게는 힘들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착취당하는 노동자고 당신은 자본가”라고 일갈하며 결혼 제도의 구속력을 함께 논하고 있다. 그가 ‘기득권’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자꾸 든다. 결혼을 뚫고, 그것을 넘어서 나갈 수 있을지…… 내가 가진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가난한 자가 구하는 평안의 기도란,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도록 땅을 일구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무영이를 들쳐업고 들판에 나가 씨를 뿌리고 풀을 메고 거두어들이는 기쁨과 평화를 얻고 싶다. 또 한 번 내가 가진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총을 메고 산 것들을 사냥하는 무리들을 뚫고, 그것을 넘어 나가자!!

– 노아노아

드디어, 넘쳐나는 일들로 ㅎ(할아버지)의 건강이 탈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ㅎ의 과제는, ㅎ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전히, 팔레스타인인은 죽음과 싸우고 있다. 그들의 아이들과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제 3세계의 민중도 별 다를 바 없다. 세계화와 군사주의라는 죽임의 양날, 미국이 주도하는 칼자루 앞에서……

히모리 아저씨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삶이 계속되는 이들은 더 큰 용기를 내어, 말로써 저항·투쟁하고, 비폭력직접행동을 준비하자!!

이 소책자는 이 죽음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대해, 우리 나름의 저항·투쟁, 비폭력직접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제에 영합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고 준비하기 위한 작은 시도라는 것을 새삼 되뇌어 본다.

– 빵돌이

자매지(姉妹紙) 소개(가격 1.500원)

▌ 상계동 모임 소식지 1호(부정기) (2001. 11. 26)

- 무까이 꼬의 방법으로서의 아나키즘(강추)
- 비전(非戰)
- 대담 – 9.11 미국테러에 대하여
- 한국인의 아나키즘 수용과 전개 …… etc.

상계동 모임 발행 동인 퀴

▌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No. 3.
▌ 펴냄 : 2002년 8월 14일(수)
▌ 연락처 : http://cafe.daum.net/anarchism
▌ 판매 : 1.000원
▌ 우편 발송 가능 : 2권 이상, 우편 실비 추가